

해남 땅끝마을 소녀, 세계를 품다

최선미 유엔개발계획 환경기후변화 정책담당관

해남여중·전남외고 거쳐 파리정치대서 국제감각 키워 독학으로 영어공부... 외교관 꿈 이루고 세계무대 맹활약

해남군 현산면이 고향인 한 소녀가 있었다. 소녀의 꿈은 세계를 무대로 활약을 펼치는 외교관이었다. 40가구가 사는 마을은 논과 밭뿐인 시골이었다. 아버지는 해남우체국 말단 공무원이었고, 논 세 마지기 농사에 다섯 식구가 의존했다. 과외는 물론 다닐만한 학원도 없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이 있었어도 못 갔을 거예요” 그녀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의 싸움이었다.

초등학교부터 책과 강의 테이프를 이용해 영어를 독학했다. 마을에 외국인 선교사라도 올 때면, 배운 영어를 한마디라도 써먹어 보려 다니지도 않는 교회를 찾았다.

동네 친구들은 일지리를 찾아 하나 둘 타지로 떠났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공부에 매달렸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공부뿐이란 생각이었다.

주인공은 최선미(여·34) 유엔개발계획(UNDP) 환경·기후변화 정책담당관. 그녀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를 품었다.

“웃만 보고는 아무도 제가 UN에서 근무하는지 모를걸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올 때면 승무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해요” 어렵던 시절 몸매 뺀 겸손함이 생활화한 그녀는 지금도 ‘시골 소녀’처럼 수수하다.

그녀는 해남여중을 졸업하고, 전남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항상 학교에서 1, 2위를 놓치지 않는 ‘수재’였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뇌졸중이었다. 삼 남매를 어렵게 키워낸 어머니는 ‘정신적 지주’였다. 충격으로 수능시험을 망쳤다. 목표했던 서울대에 낙방하면서 그녀는 한국외대 프랑스어과에 입학했다.

남도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고학하던 그녀였지만, 꿈은 여전히 세계를 향해 있었다. 대학 재학시절,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홀로 1년간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외국에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제도)를 떠나기도 했다. 그런 그녀를 눈여겨본 교수의 추천으로 그녀는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등록금도 잔디다 생활비까지 보조해 주니 그녀에게 말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그때도 같이 유학온 친구들과는 다른 생활을 했죠.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번역이나, 여행 가이드 같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내용 중에 빈곤 문제나 국제 원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느낀 문제 의식이 작용했다고 생각

해요”

9개월 동안 프랑스의 한 소액금융 지원 사업체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그녀는 국제감각을 키웠다. 파리정치대학 석사 졸업 후 한동안 프랑스에서 컨설팅회사에서 일하던 그녀는 2006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외로움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였다.

“운 좋게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국제협력과를 조정하는 ‘동료평가’과정을 맡게 됐어요. 그 뒤에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조급전문가(JPO: 정부예산으로 국제기구에 자금 지원을 과결하는 제도) 과정을 수료했죠”

유엔환경계획(UNEP) 근무를 희망한 그녀는 방콕에 있는 UNEP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아시아를 누볐다. 환경 보존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친환경 개발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일이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지난 2011년부터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유엔개발계획(UNDP)에 몸담고 있다. 지금은 아프리카의 개발에 따른 환경과 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방안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아버지 최만석(71)씨는 “형편상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 마음에 걸리는 딸”이라며 “원하는 바를 이뤘더라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뿌듯해 했다.



프랑스 유학 시절 최선미씨.



전남외고 재학시절 최선미씨.

/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동구, 폐가 둘러싸인 곳에 마을쉼터 ‘논란’

광주시 동구가 폐·공가로 둘러싸인 공간에 주민 쉼터를 조성하기로 해 부지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동구 동계천로(계림동 49-20) 대인시장 인근 417㎡ 부지에 파고라·체육시설 등을 설치한 주민 쉼터와 텃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최근 이 사업비 명목으로 광주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중순에 해당 지역구 구의원이 제안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없고 폐·공가가 많은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의 예초 의도와 달리 이 부지는 폐·공가로 둘러싸인 공간에 위치해 마을 쉼터를 조성할 경우 오히려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사업예정 부지 주변 폐가 또는 빈집에서 청소년 탈선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마을 쉼터의 경우 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 위치해야 하는데, 이곳의 경우 폐·공가로 막혀 있어 가는 길목이 너비



광주시 동구가 연내 조성하려는 마을 쉼터 예정부지(선 안) 주변에 폐가와 빈집이 밀집해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대인시장 인근... 市에 특별교부금 5000만원 지원받아 청소년 탈선에 각종 사건·사고... 우범지대 전락 우려

50cm~1m의 골목길 단 한 곳밖에 없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

부지 소유권도 문제다. 구는 해당 부지 소유자로부터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마을 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땅 소유자가 계약기간 동안 재산권행사 등을 할 수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땅 소유자가 시설물 철거를 원할 경우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민 김모(63)씨는 “폐·공가가 많아 인적도 드문 곳인데, 하필이면 이런 곳에 마을 쉼터를 조성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그동안 폐·공가 철거사업으로 철거부지에 텃밭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줬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부지를 찾던 중 땅 소유자가 무상임대를 해준다고 해서 이곳을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종황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교육 업무 지자체 이양을”

전국시도지사협, 지방분권·재정혁신 한목소리

전국 지자체들이 지방분권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인수위원회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방분권과 재정혁신을 재촉하겠다”고 밝혔다.

예초 25일 예정됐던 시도지사협과 인수위의 만남은 김용준 인수위원장 이 24일 국무총리로 지명돼 무기한

연기됐다.

시도지사협은 크게 지방분권과 재정혁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지방분권 핵심은 교육과 경찰 자치제 도입 등이며, 중앙정부 권한에 묶여 규제받는 지방조세 제정권(법률범위 내 제정)을 넘겨달라는 자치입법권 보장 등도 포함됐다. 또 재정혁신은 영유아 무상보육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분을 전액 보전 등이다.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향 지휘자 루드비히, 재계약 포기

단원 연임 반대 부딪혀... 2월말까지 임기 수행

단원들의 연임 반대에도 부딪혀온 광주시향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크리스 루드비히(35)가 광주시와 재계약을 포기했다. <관련기사 12면>

루드비히는 24일 광주시에 보낸 발표문을 통해 “광주시의 연임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다”고 밝히고 “2월말까지 예정된 임기는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루드비히는 지난해 말 광주시로부

터 연임을 통보받은 후 오는 2월 정식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단원들이 불공정 오디션에 대한 법원 판결과 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연임을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루드비히는 이날 발표문에서 “취임 후 단원들이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에 노력했지만 일부 단원들은 이런 변화를 반대했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연임 반대와 관련

해 단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광주는 물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화중심도시가 되고 싶어하는 광주는 수준높고 열심히 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단원들과는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KTFC (사) 한국맛음식연구원
Sthe1 요리학원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김치 대회반 · 자격증반&아동요리 자격증반&떡백자자격증반 모집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토요일 PM2:00~PM4:00(12주)
교육과목 | 색채디자인, 푸드컬러, 꽃꽂이, 와인, 테이블매너, 푸드스타일링, 테이블 세팅

푸드코디네이터의 활동범위
푸드스타일링, 파티플래너, 테이블장식가, 레스토랑컨설턴트, TV주방호스트, 푸드라이터 등

김치 대회반 ·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화요일 PM1:00~PM3:00(12주)
교육과목 | 김치 이론, 당근기 실습, 김치 퓨전 요리, 김치 스타일링

아동요리지도사의 활동범위
김치 전문가, 문화센터 · 평생교육원 강사, 부원, 창업

아동요리지도사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토요일 AM10:00~PM12:00(12주)
교육과목 | 아동요리론, 아동요리지도사론, 아동요리의 음악·아동요리의 예제와 실제, 아동요리 시연

아동요리지도사의 활동범위
방과후 아동요리지도사, 유치원 · 문화센터 · 평생교육원 아동요리지도사 등

떡백 · 이바지사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화, 목요일 AM10:00~PM12:00(12주)
교육과목 | 오징어말림, 꽃감조림, 한과류, 장과류, 쌀장정, 쌀엿, 대추탕, 육포, 구절편, 찹쌀부꾸미

떡백 · 이바지사의 활동범위
푸드스타일링, 파티플래너, 테이블장식가, 레스토랑컨설턴트, TV주방호스트, 푸드라이터 등

방학 중 할인 이벤트 진행

푸드코디네이터 명인2호 · 김치소믈리에 명인2호
2012 대한민국 신지식인 교육부분 대상 수상 “이성의 원장”

조리사자격증반 한식 · 양식 · 일식 · 중식 · 북어 수시개강 (주간 · 야간)
생활요리반 & 특수요리반 수시개강 (주간 · 야간)

Sthe1 요리학원 문의 전화 062)385-0723
금호파울스 건너편

대출금리:연5.5%~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리모델링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4,6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2,100,000원
	지역은행	10,000,000원	1,170,000원
	상성카드론	9,000,000원	1,880,000원
	대부업체	8,000,000원	2,8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11,200,000원
	솔로몬 저축	15,000,000원	4,485,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7,8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36,035,000원	

에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6,750,000원
	농협은행	40,000,000원	3,200,000원
	씨티은행	50,000,000원	4,500,000원
총부채	190,050,000원	14,450,000원	

부채 리모델링 전 연간 이자비용이 3,600만원이었으나 리모델링 후 연간 이자비용이 1,445만원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본 사례 사례입니다 부채 리모델링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고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 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중증이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가지로 만든 한약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를 튼튼케 하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효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중-4738호